

계, 대형포털들의 서비스 강화에 의한 경쟁심화로 수익성이 취약한 상황이다. 따라서 당분간은 자본력이 열세인 전문 UCC 업체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⁵⁾

참고자료:

- [1] 임순옥, “UCC의 국내외 동향”, 『정보통신정책』, 제 19권 4호 통권 411호, 2007. 3. 2
- [2] 하동근, “방송분야 불법 복제물 침해사례발표”, 『UCC 가이드라인 컨퍼런스 자료집』, 2007. 3. 21
- [3] 한화증권, “또다른 세상, UCC”, 2007. 4
- [4] 매일경제신문
- [5] 전자신문

동아시아 통합 논의와 IT 협력

정보통신협력연구실 연구원 박지원
(T. 570-4214, ppakjee@kisdi.re.kr)

1. 개요

국제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세계화와 함께 지역통합이 지구 곳곳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 내용이 지역 간의 상업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생산품을 공유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경제통합에 관한 것이든 혹은 좀 더 포괄적으로 정치사회적 통합을 이야기하는 커뮤니티 형성에 관한 것이든 각 대륙은 바빠 움직이고 있다. 지역통합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21세기를 규정하는 새로운 국제질서에 편입하는 방법인 탓이다. 동아시아 역시 - 동아시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있더라도 -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는 아니다. 현재까지 경제협력과 무역 자유화를 위한 APEC이 있어왔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연합으로 시작했던 ASEAN은 한·중·일 동북아 3국을 포함하는 ASEAN+3, 더 나아가 호주, 뉴질랜드, 인도까지 포함하는 ASEAN+6를 거론하며 동아시아 지역의 포괄적인 통합체 구상에 박차를 가

-
- 3) 주요 UCC사이트의 네트워크와 스토리지 비용은 월간 약 5억원 정도임(전자신문, '07. 4. 5)
 - 4) 저작권보호센터에 따르면, UCC사이트에서 순수 UCC는 약 16%에 불과(조사기간: '06. 7~10월)
 - 5) 판도라TV는 상반기 약 5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나 10~20억원 수준의 적자이고, 엠엔캐스트는 매출액 18억원에 약 10억원의 적자로 알려짐(매일경제, '07. 7. 30)

하고 있다. APEC은 1989년에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15개의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IT 분야도 그 중 하나로 회원경제체 사이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화 사회를 구축함으로써 공동 번영을 꾀하기 위한 행동계획이 마련되는 등 꾸준한 노력을 이어왔다. 게다가 지난 2005년에 있었던 ASEAN+3 정상회의를 통해 각 회원국들은 동아시아 정체성 함양과 참가국 간 공동 번영을 위한 IT 협력을 확대하고 회원국 간 협력의 장기 목표인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다. 이 같은 맥락에서 지난 6월에 있었던 제4차 제주평화포럼에서도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주제로 유럽의 경험을 탐구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으며 그 중 IT는 새로운 사회질서를 구축하는 기제로서 IT협력에 관한 특별 세션에서 따로 논의가 전개되었다. 한국이 IT강국의 이미지를 강조하며 국제무대에서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도 향후에 지속될 통합논의에서 정보사회 구축이 중요한 이슈로 나서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2. 동아시아 IT 협력

지난 6월 제4회 제주평화포럼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유럽경험의 탐구”라는 주제 하에 개최되었다. 제주평화포럼은 격년제로 개최되는 국제회의로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을 논하는 자리이다. 이번 제4회 제주평화포럼은 세계경제가 형성에 맞추어 인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기업과 국가를 넘어 초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IT를 주목했다. “동아시아에서의 IT협력”이라는 주제로 IT 관련 논의가 특별세션으로 개최되었고, IT 발전이 미칠 정치·경제·사회적 영향력을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이라는 입장에서 바라보는 기회였다. IT 협력과 미래 정보사회의 전개를 그려보면 IT가 창출할 새로운 미래와 역동적 변화, 대륙 간 네트워크 연결을 통한 문화교류, IT 기술을 통한 문화변혁 등으로 논의의 대상이 정리될 수 있다.

동아시아의 역동적 변화가 IT를 통해 시작해 새로운 미래를 창출할 것으로 본다면 지속적인 협력방안을 찾기 위한 의미 있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 IT를 통한 협력과 번영을 논의하며 IT가 인류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핵심기술 중의 하나임을 누구나 감지하고 있다. 공동의 가치 체계를 형성하면서도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노력이 함께 해야 하고, 원격의료서비스나 원격정보화교육 등 새로운 미래사회를 IT가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기술적인 장치들을 꾸준히 마련해야 실질적인 가치창출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IT가 국가간 협력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어 그 중요성이 더해질수록 향후 동아시아의 역동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롭고 다양한 협력 기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유럽과 아시아의 대륙 간 네트워크 연결은 향후 자유무역협정 논의에도 반영될 것이다. 유

립의 정보사회 관리시스템과 네트워크, 정보사회화 진전이 협상 내용에 반영되어 규제완화 문제와 세계표준을 위한 공동노력의 필요성이 나선다. 또한 기업간 협력과 경쟁의 양상이 정부간에도 나타나 국가간 통신서비스 제도화 과정에서 자국의 서비스를 세계표준으로 하기 위한 경쟁을 하면서도 상호 협력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 국가들이 “수평적 규제틀”을 마련하여 공동기술개발과 표준채택을 위한 협력을 하면서도 자국을 경쟁우위에 올리려는 노력이 현실화 되고 있다. 이에 더해 정부와 기업간에 협력과 경쟁도 나타나고 있다. 국가는 전략적 파트너로 외국기업을 선택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타국의 국가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이때 전략적 파트너와 신기술표준을 위해 정부와 기업들은 때론 협력하기도 하고 경쟁하기도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새로운 고객가치는 정보통신분야의 융합을 통한 협력과 경쟁에서 창출될 것이고 동아시아는 여기서 신 성장동력을 찾게 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이 더 이상 산업이 아니라 문화이며 인터넷이 문화변혁을 이끌고 있다는 측면도 제기된다. 산업혁명이 유럽을 침투해 가면 문화를 바꾸었듯이 인터넷을 위시한 정보혁명이 아시아의 문화를 바꾸고 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한 사이버공간에서 국제활동이 완전 개방체제로 전환되었고 실질적인 글로벌 경쟁이 가능하며 이루어지고 있다. 인터넷이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협력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한 이유이다. 시장이 변하고 인터넷이 확산되는 만큼 지식변환의 주체역시 다양화되기 때문에 기존의 세계질서에서 강대국만이 세계 전체의 지식센터로 기능 할 수 있었던 상황이 변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이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동질성과 특수성을 살리는 지식체계를 형성하고, 한 국가가 아닌 인터넷이 지식센터역할을 하게 되면서 정보유통혁신이 아시아 단위의 차원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국제협력의 무대에서 IT가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한국은 IT강국의 이미지를 고수하기 위해 국내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투자해야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한국은행이 지난 3월에 발표한 “주력 성장산업으로서 IT산업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이란 보고서가 한국의 IT산업 성장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을 눈여겨 볼 만하다.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위와 같이 활발하다면 그 속도에 맞출 수 있는 국내적 여건이 필수이다. 그렇지 않다면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IT협력에 대한 논의와 한국의 주도적인 참여가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

3. 결 어

“Community Building”은 그에 대한 논의의 깊이와는 달리 현실에서 상당한 걸림돌에 맞부딪히는 주제이다. 가장 오랜 시간 경험을 축적해온 유럽대륙의 통합도 다른 지역통합체의

역할 모델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 겪는 사회정치적 진통이 만만치 않다. 통합에 대한 정치적 열망과 사회문화적 부응의 간극이 심한 탓일 수 있다. 지역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공학적인 논쟁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왜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철학적인 논쟁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은 까닭이다. 그런 탓에 시장통합을 그 지렛대로 삼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통합 논의가 뼈거덕거릴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동아시아의 통합을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동일한 문화권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은 선언의 형태로 그 긍정적인 효과만 되새겨질 뿐이다. 하지만 먼 시점의 일이라고해도 지역협력과 통합의 큰 흐름은 시작됐다고 봐야한다. 그리고 IT협력은 다른 지역통합의 예와 마찬가지로 지역 협력의 첫 단계인 경제금융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이자, '글로벌사회'를 구축하는 가장 중요한 매개가 될 수 있다. 산업사회에서 이루어졌던 교류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무형의 정보들이 전달되고, 그로인해 새로이 "글로벌 문화"라는 동질성을 형성할 가능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국제협력의 중요한 주제로 IT기술이 부각되는 이유이다. 현재 APEC 내에서는 정보통신실무그룹의 활동을 통해 IT 협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10월에 개최되는 제36차 APEC 정보통신실무그룹회의(APEC TEL36)와 내년 4월에는 3년 만에 열릴 예정인 제7차 APEC 정보통신장관회의(TELMIN7)가 준비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IT 분야에 관심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기존의 회의 의제가 보강되고 새로운 협력 의제들이 꾸준히 제안되고 있으며 가시적 성과를 얻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보다 진화한 형태의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이 어떠한 결실을 맺을지 시간을 두고 지켜 볼 일이다.

참고자료:

- [1] 제4회 제주평화포럼 보도자료2, www.jpi.or.kr
- [2] 『Regional Integration-APEC beyond EAC(East Asian Community)』, Dennis McNamara